

## 임상치주학의 과거, 현재 그리고 미래

권영혁 교수

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



치주치료의 목적은 시대의 흐름 및 환자의 요구도와 새롭게 개발된 여러 가지 재료에 의하여 변화하였고 지금도 변하고 있다. 과거에는 치주낭을 제거 하기위한 치은절제술이나 치주판막수술같은 삭제형 수술이 주를 이루었으나, 조직의 일부를 절제함으로써 비심미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었다. 따라서 원인 제거를 위한 수술이 아닌 소실된 치주조직의 재생을 위한 여러 가지 수술법이 개발되어 심미성을 증진 시키는 물론 기능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.

치주조직재생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생각한 것은 골이식술이라 할 수 있다. 골이식술은 수술법의 향상보다는 이식재료의 개발이 전체를 주도해 나간다고 할 수 있다. 자가골, 동종골, 합성골 및 이종골이 시대흐름에 발 맞추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신소재를 응용한 재료까지 개발되어 이미 임상에 응용되고 있다. 골이식술과는 별도로 치주낭내벽을 새롭게 형성된 백악질에 사피섬유로 부착시키려는 시도가 차폐막을 통하여 이루어져 조직유도재생술이란 이름으로 명명되어 1990년대에 전 세계에서 유행했던 술식이 되었었다. 그러나 골조직재생에는 한계가 있었고 조직유도재생술후에 치태조절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치주낭이 형성됨으로 해서 노력에 비하여 치료의 장기적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다. 최근에는 완벽한 치주조직재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장인자에 대한 임상전 연구 및 이에 대한 임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. 아직 완전한 재료 및 술식의 프로토콜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임상적으로 매우 희망적인 재료라 할 수 있다.

현재에는 임플란트가 치주치료술식의 여러 영역중에서 한 자리매김을 하면서 임플란트와 연관된 골 조직 및 연조직 재생술식에도 관심이 높아졌다. 치주치료와 연관하여 발전한 재생술식의 개념은 임플란트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. 치주질환이 심하게 진행된 후 치아를 발거했거나, 치아를 발거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경우, 또는 상악동, 하치조신경등과 같은 해부학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 치조골의 양이 부족하게 된다.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골이식술이나 골유도재생술을 각각의 경우에 시행하여 충분한 골을 형성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거나 임플란트식립과 동시에 위의 술식을 동시에 시행하기도 한다. 임플란트의 식립이 증가하면 할수록 임플란트주위염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하며 이에 대한 치료는 식립된 임플란트의 종류 및 표면 처리 방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, 일반적으로 치주질환의 치료방법에 준하여 초기치료, 삭제형 또는 재생형수술, 항생제투여 및 유지치료등으로 이루어 진다.

지금까지 임상치주학의 목표가 부분적인 재생을 통한 치주조직의 재건과 구강기능의 회복에 있었다면 미래의 임상치주학은 치주조직의 완전한 재생과 구강기능의 회복 및 심미성의 증진에 초점이 맞추

어 질 것이다.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술식의 개발과 더불어 누가 수술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재료의 개발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. 현재 상용되고 있는 골이식재, 차폐막 등은 재생능력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성장인자등을 응용한 값이 싸고 예견성이 높은 신재생재료의 개발이 요구된다. 임플란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치주과학의 여러 분야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임상 연구 및 장기간의 실험이 계속 이루어 질 것이다.

끝으로 재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효과가 좋고, 최신의 수술방법이라 할 지라도 치태조절이 안 된다면 모든 술식의 결과가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치주과학을 공부하는 모든 의사들은 이를 늘 명심하여야 하며 이것이 치주과의사의 또 다른 장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.

### 약력

- 1967. 3 - 1973. 2 경희대학교 치의학과(치의학학사)
- 1974. 3 - 1976. 2 경희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(치의학석사)
- 1976. 3 - 1982. 2 경희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(치의학박사) 치주과학 전공
- 1991. 3 - 현재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교수
- 1991. 4 - 1998. 12 경희대학교 부속치과병원 치주과 과장
- 1992. 7 - 1992. 9 일본 아사히대학 치학부 객원교수
- 1994. 6 - 1996. 3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이사
- 1997. 3 - 1999. 3 대한치주과학회 회장
- 1998. 12 - 현재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병원장